

原子力發電과 言論의 시각



徐正男

〈環境經濟新聞社 社長〉

1. 서론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 앞서 원자력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공급원으로 그 위상이 정립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국제원유 파동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의 탈석유, 에너지 다변화로 바뀔에 따라 석유의존 전 원개발에서 LNG도입과 더불어 원자력 및 유연탄발전소의 건설로 방향이 선회되어 그 위상은 더욱 확고해 졌다고 할 수 있다.

뿐더러 '80년대를 접어들면서 국제 원유가의 계속적인 상승과 산유국의 사정에 의해 수급의 불균형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최근에는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해 그 수급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어 앞으로 탈 석유 기조는 더욱 굳어질 조짐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또 다른 한 이유로 에너지개발과 관련된 환경오염문제 즉 최근 오존층의 파괴, 온실효과와 기상이변 현상, 산성비 등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어 범세계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간 협력의 소리가 고조됨에

따라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로 등장한 CFC의 대체품이 개발되어 이제 실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음은 이를 입증하고 있는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은 이미 개발된 여타의 에너지보다 환경오염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또 경제적이란 사실이 입증되어 장기적인 건설계획을 수립, 촉진하고 있음이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또 경제성이 높다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있어서 반대여론이 왜 무성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의 현실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잘 길러야 한다는 어려운 경지에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여론형성의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는 언론의 시각을 분석 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페르시아만 사태가 단기적으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원유가 상승요인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과거와 현재의 원전건설에

다른 언론의 시각을 조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 비판적 보도가 주종

여론형성의 막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의 원전에 대한 과거 시각은 다분히 비판적 또는 과장된 표현이 많았음이 사실이다.

왜 이처럼 비판적이고 과장된 또는 미확인 보도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는 엄격히 말해 원전에 대한 정보부재에서 기인된 것이라 하겠다.

즉 원전건설 당사자들의 일방적 밀어부치기식 건설계획은 호기심적 취재원이 되었고 이로 인해 확인 또는 전문기관의 판단이 서기 전에 앞서서 보도가 된 것이며 이는 결국 비판적 또는 과장 표현이 된 결과를 초래했다.

1979년 3월 미국의 TMI 원전사고와 1986년 4월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반원전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언론의 시각은 더욱 날카로워 졌으며 이때부터 갖가지 원전기사가 지면을 장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말해 이 두 원전사고가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의 태도에 불을 붙였으며, 원전건설 당사자들은 이에 대처한 적극적 홍보전략을 폈으나 사실상 효험은 없었던 점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원전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소련에서 이같은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첨단기술로도 해낼 수 없는 것이 원전이라는 혹독한 비판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반원전운동은 더욱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내에서 전개되는 반원전운동도 정치·사회적 기류에 영합 더욱 활발해져 기사로서 소재로 등장하기에 이르러 더러는 미확인 또는 호기심을 일으키는 흥미위주의 기사도 적지않게 취급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1988년 12월 10일경 고리마을 주변에 핵폐기물이 묻혔다는 언론 보도는 반원전운동 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마저 당혹케 하는 등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또 최근 영광원전 근로자 부인의 무늬아 출

산이라는 내용이 각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전문기관의 엄밀한 조사를 통해 핵폐기물인지 또는 일반폐기물인지의 여부, 또 무늬아가 과연 원전가동으로 인한 방사능피폭이 원인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그 사실만 전달하는 것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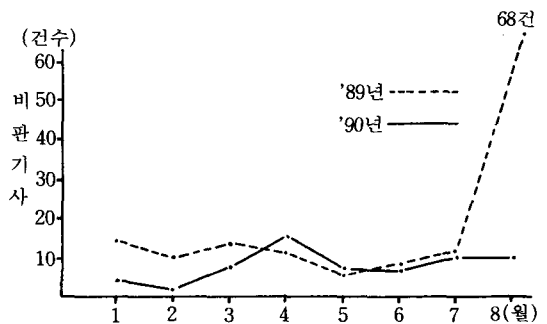
상황적 근거 또는 판단키 어려운 특정적 내용이 호재로 등장, 보도됨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극히 부정적이 되었으며, 원전이 두려움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전문기관의 전문적 판단이 보도됨에 따라 서서히 분석되어진 것을 보면 사실보도의 중요성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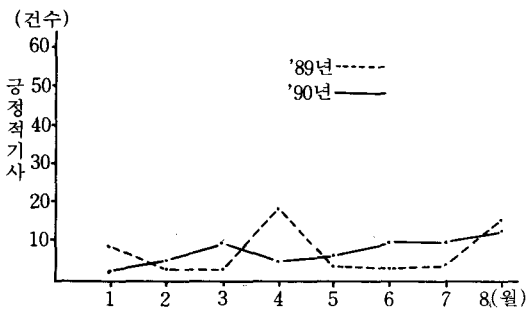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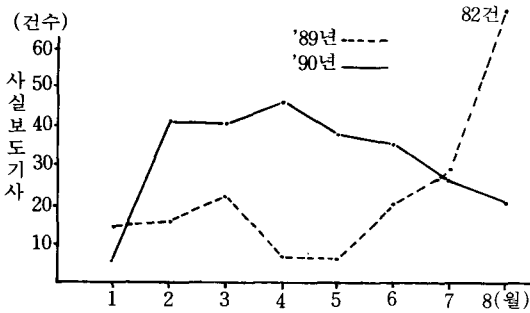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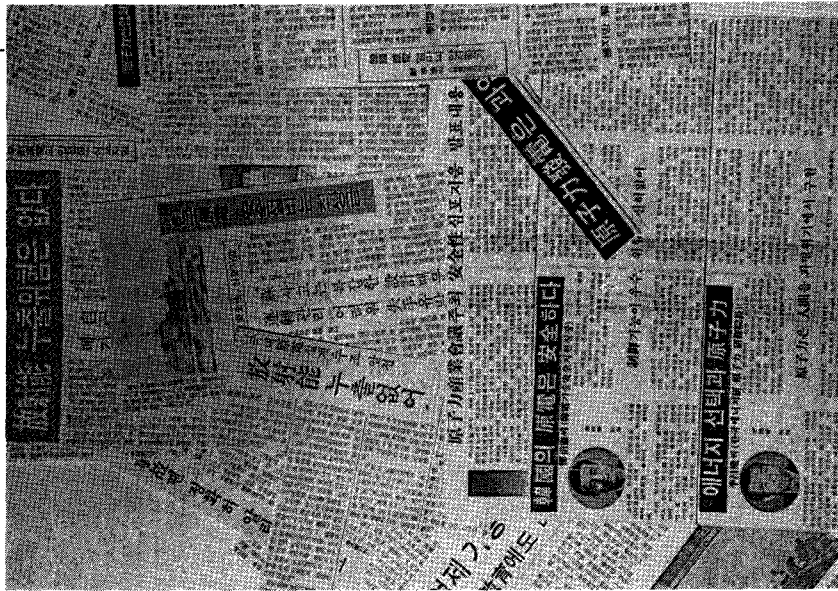
3. 결론

'90년도에 접어들면서 언론의 원전에 대한 보도태도는 <표1>과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핵운동단체들의 행동 역시 두드러지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원자력에 대한 핫이슈가 과거 보다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또한 은실효과와 기상이변, 산성비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른 지구환경문제가 전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시각이 환경문제에 쏠린 탓이라 분석되고 있다.

<표 1> '89, '90 원전기사 분석





특히 폐탄사태 이후 에너지 해외의존이 몰고 오는 경제적 부담가중이 더욱 큰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언론과 반핵단체들의 시각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지금 또다시 석유파동이 전개됨에 따라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도 조심스럽게 원전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원전 이

외의 공급이 안정된 대규모 상용화된 대체에너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음이 현실이다.

뉴스는 역사에 따라 인간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질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뉴스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던 때가 있었고 사회뉴스 또는 군사뉴스가 각광을 받던 때가 있었듯이 역사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변하고 인간 생활상이 변한다면 정신, 물질, 사회적 필요에 따라 추구하는 뉴스의 가치나 판단 기준도 당연히 달라진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언론의 특정적 메카니즘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과 쾌적한 환경권 충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잘 길러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감을 파악한 언론의 태도를 직시한 원전건설 당사자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양질의 정보를 그것도 성의있게 제공하는나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사회가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당위성만 강조하는 홍보태도는 언론의 욕구충족조건에 적합치 않다는 점이 강조된다.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추구하는 국민 의식이 팽배해진 현실점에서 사실보도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거짓없는, 감추는 것이 없는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작금의 원전에 대한 언론의 기대이며 시각이라 할 수 있다.